

## 여성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참여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이정기\*\*

본 연구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봉사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의 삶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자원봉사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사와 봉사활동 경험을 Clandinin과 Connelly의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참조하여 기술하였으며, 각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는 (1) 생활환경을 포함한 생애사, (2) 봉사활동 참여 경험, (3) 봉사활동에 대한 성인지 담론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풍경 도식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1)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해서는 ‘단단한 터 다지기’, (2)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일상의 리모델링’, (3) 여성으로서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엄마 같은 집 짓기’로 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건축 현장에서 모티프를 삼아 묘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풍경 도식은 ‘붉은머리오목눈이의 알 품기’로 비유하여 타인과 세상에 대한 보호적 태도를 묘사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 참여한 40대부터 60대 중년 여성들은 성인지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모성의 확장에 근거한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과 접촉하며 자신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성 주류화와는 다른 방향으로서, 30대 이하 여성 자원봉사자의 성인지와 비교 연구를 요청한다.

**주제어:** 여성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성인지, 내러티브 연구, 성역할 고정관념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9151).

\*\*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미디어사회복지전공 외래교수.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1365자원봉사포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등록인원 기준 56.8%, 활동인원 기준 61.9%에 해당한다.<sup>1)</sup> 통상 지속성과 활동시간에서 여성의 자원봉사가 우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최대 74.1%까지 추산(조선주 2011)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원봉사의 여성화’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와 관련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된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험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경제참여율 및 비공식 부문의 돌봄노동 과도 관련이 있고, 따라서 자원봉사의 여성화는 거꾸로 보면 ‘여성 노동의 자원봉사화’라는 이면을 내포하는 현상일 수 있다. 자원봉사의 여성화는 자원봉사자 개인사와 사회관계적 측면, 사회구조적 측면 등 전반적으로 여성 자원봉사자의 삶과 사회활동 전반에 걸쳐 역동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탐색은 기존의 자원봉사 정책 및 실천, 연구의 패러다임에서는 큰 관심을 두고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담론은 가치 지향, 성장 지향적인 과정 안에서 형성되어, 자원봉사 자체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금기시한 면이 있다. 이같이 선행연구의 부재와 수사적 통찰만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 연구가 의도하는 것은, 문제의식의 촉발과 더불어 당사자인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하나의 시도를 시연하는 일이다. 이로써 자원봉사의 현실에 관한 추측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접근 지점들을 제안하고, 후속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1) 1365자원봉사포털(1365.go.kr)에서 [봉사정보→자원봉사 통계] 메뉴 참조. 2023. 1. 28. 확인.

자원봉사의 규모 측면에서는, 1990년대 이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자원봉사활동의 보편화, 자원봉사 연구의 지속적 산출 등 세 부적인 조건들이 꾸준히 발전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15년 넘게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양과 질 양면에서 정체(停滯)되어 왔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정체는 “자원봉사 담론의 소멸”(이정기 2019, 77)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자원봉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무관심한 상태를 야기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정체와 무관심의 현상이 자원봉사 정책의 거시적 측면과 자원봉사자의 실제 활동과 현실이라는 미시적 측면이 서로 마주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자원봉사 연구자와 정책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 상부구조의 점진적 발전과는 달리, 일선 자원봉사자들의 소모적 역할과 미천한 경험은 자원봉사의 이상(理想)과 괴리된 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이해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범위적(middle range)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범위 주제란 단순히 거시와 미시 수준 사이의 규모 측면이 아니라, 거시적 경향성과 미시적 영역을 분석적 차원에서 매개하여 설명할 수 있는 주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의 거시적 환경과 자원봉사자의 미시적 행태 사이에는 사회자본, 대인관계, 자기효능감 등의 개념들을 사회심리적 차원에서 설정할 수 있고, 실제로 다수의 양적 연구에서 매개효과 측정 등 정밀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념들의 개입 효용성을 측정해 왔다. 그러나 연구자는 자원봉사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봉사활동 환경에 주목함으로써 새로운 중범위 연구 개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환경을 거시 수준으로, 여성 자원봉사자 개인의 봉사활동 경험을 미시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 둘의 역동을 이해하게 해주는 중범위 관점으로서 성인지(性認知) 개념을 선

택하였다.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은 각종 제도나 정책에 사용되는 개념들이 특정 성에 대해 가지는 유불리, 성 역할 고정 관념이 개입의 여부 등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이종수 2009)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원봉사의 현장과 자원봉사자의 활동 양상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관찰할 경우, 매우 새로운 현상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의 이야기를 대화시키지 않으면서 텍스트로 구성하여 드러내는 작업은 본 연구에서 차용하고자 하는 내러티브 분석방법이 주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여성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은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발견되고 새로운 담론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영리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경험과 결부된 가족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단체활동의 역동성, 봉사활동을 통한 정체감 형성 등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경험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다. 내러티브 연구방법은 분절적이지 않은 총체적 텍스트 구성 방식 때문에 산만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듯 보이나, “풍부한 묘사와 문학적 은유를 사용하여 사회문화적, 역사적 영향 등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돕는다(홍현미라, 권지성, 장혜경, 이민영, 우아영 2008, 209). 이러한 방식은 단지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의 전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이야기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과 이야기의

방식 및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하게끔 한다. 이를 통해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시간적, 공간적 흐름에 따라 지역사회 안에서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그 경험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았는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공공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여 성 중립적 정책을 성인지적 정책으로 변화시키는”(김혜정 2018, 218)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형태를 자원봉사 영역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여성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의 개인적 또는 조직적 활동 경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들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로 정하고, 이에 따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통해 개인사와 가족을 포함한 사회관계에서 자원봉사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것은 개인사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 대한 탐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경험을 통해 가지게 된 의미성이 개인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이기도 할 것이다.

둘째,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 경험에서 가지게 된 의미가 성인지적 연관성을 가지는지 그 여부와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무성(無性)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 자원봉사자인 당사자의 이야기(내러티브)를 통해 직접 화법으로 그 근거를 찾게 될 것이다.

셋째, 결론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여성 자원봉사자의 내러티브가 자원봉사의 현장에 목소리로 드러나고 경험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내러티브 연구의 중요한 특성 중 하

나는 구조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목소리를 텍스트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여성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젠더화의 뚜껑을 열고 새로운 담론에 참여할 통로를 열게 될 것이다.

##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여성 자원봉사자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여성 자원봉사의 가치를 상기하고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향상을 도모하는 보고서 성격의 문헌들이다. 대표적으로 주성수(2004)의 『정부의 자원봉사 정책과 여성 자원봉사 발전방안 연구』를 들 수 있으며, 여성 자원봉사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의 개발에 관해 주로 다루고 있다. 조선주(2011)는 민간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함에 있어 여성 비중이 높음을 강조하였으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장성자(1994)의 연구는 선거운동 여성 자원봉사자의 참여 의의 및 역할에 기초한 여성 선거자원봉사자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연구 유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더 미시적으로는 자원봉사의 지속에 관한 연구들 중 일부가 여성 자원봉사와 관련되어 소개되기도 한다. 구혜영, 김일동(2012)은 개인, 업무, 조직요인이 여성 노인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으며, 외국에서도 Waters & Bortree(2012)가 자원봉사 지속성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과 포용성을 논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분석한 바 있다. 이처럼 정책 또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여성 자원봉사에 접근하는 선행연구들은 기존의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암묵적 기준을 준수하고, 여성을 ‘무보수 인력’으로 간주하는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유형에서 추구하는 성장 지향적 자원봉사 연구와는 달리, 여성 자원봉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텍스트를 구성함으로써 자원봉사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였다.

둘째, 여성 또는 특정 연령대의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가지게 되는 주관적 삶의 의미와 관계의 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들이다. 김금순, 홍경선(2019)의 중년기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광미정, 김영미(2015)가 여성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유형을 심리적 안녕감과 여가 만족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한 논문, 김성경(1999)의 여성 자원봉사자의 활동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등 사회복지실천 분야의 연구들이 많지는 않으나 존재하고 있다. 특히 중년 여성 자원봉사자의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는데, 서병숙, 김혜경(2000)의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나 최희경, 김승희(2012)의 중년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과 가족 내 역할의 관계에 대한 연구, 홍선희(2015)의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중년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등이 발표되어 있다.

이 유형의 연구가 여성 자원봉사자의 주관적 또는 심리적 현상의 분석에 치중함으로써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에 비해, 본 연구는 당사자의 주관적 영역에 접근하면서도 당사자의 숨은 목소리가 직접 드러나도록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셋째, 국내외를 막론하고 드물지만 자원봉사의 젠더적 성격에 대해 접근하려는 연구 시도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공미혜, 류순덕(2004)이 전화상담 여성 자원봉사자의 여성주의 정체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으며, 외국의 연구로는 Park(1996)이 가부장적 사회구조 안에서 개념화된 자원봉사활동의 젠더적 특징에 관해, Stride,

Pitzgerald, Rankin-Wright, & Barnes(2019)의 최신 연구는 스포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 경험과 개인적 상황에서 분명한 젠더화가 발견된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유형의 연구들처럼 성인지적 관점을 지향하며, 해외 연구 사례들과 같이 질적 연구의 기본적 태도에 근거하여 귀납적 해석의 과정을 거쳤다.

여성 자원봉사자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물은 주요 인덱스 검색 결과 30개 미만으로 물량도 많지 않지만, 일단 최근 발표된 자료가 드물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최근 국내외를 막론한 자원봉사의 정체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는 자원봉사 연구의 패러다임에 다양성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 범위와 대상

내러티브 탐구의 범위는 장소와 공간과 결합된 개념으로서의 상황,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연속성,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이라는 세 가지 탐구 영역(홍현미라, 권지성, 장혜경, 이민영, 우아영, 2008)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 영역에 함께 얽혀 있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맥락과 관계의 측면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기술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해서는 목적적 유의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질적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료 수

집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연구 목적에 따라 분석을 실행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적절한 연구참여자 인원은 일반적으로 최대 열 명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의 주요 영역인 사회복지, 공공 지원조직 등에서 활동한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후, 위의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 대상 연구참여자의 조건은 현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으로서, 이야기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봉사활동 참여의 분야와 지역, 연령 등을 분산하였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경험을 연구목표에 따라 기술한 후, 분석결과를 Clandinin & Connelly(2007)의 제안을 원용하여 기술하였다. 일단 각 연구참여자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나, 봉사활동 이외에도 가족사와 사회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연구참여자들의 봉사활동 진입과 유지,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의 봉사활동 환경과의 상호작용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는 (1) 성장과정과 원가족 관계를 포함한 생애사, (2) 과거와 현재의 봉사활동 참여, (3) 봉사활동에 대한 성인지 담론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구체적인 기술방식과 관련하여, Clandinin & Connelly(2007)는 연구참여자의 삶의 경험을 분절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은유의 사용을 제안한다. 어떤 경험에 대한 은유의 상징으로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그 경험에 대한 수용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은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풍경 도식’을 제시 하는데, 여기서 풍경(landscape)이란 “내러티브 탐구에서 시간, 장소, 사람들의 상호관계성 및 사건들로 가득 찬 공간을 의미한다”(박향경 2012, 150). 본 연구에서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기반이 되는 지역 사회(community) 맥락에서 생애와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한 장기간의 경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서사문학이나 자연 풍경과 같이 전형적 형식 안에서 보편적인 구성을 가지면서도 봉사활동의 장면을 그려 내는 특유의 콘텐츠를 찾아 독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여성 자원봉사자의 삶의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문화적 풍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연구참여자와 그의 환경을 그 풍경의 구성요소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Clandinin & Connelly(1990)에 의하면 내러티브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연구방법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므로, 연구참여자들인 말하는 이들과 연구자인 듣는 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 탐구는 이야기를 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탐구하고자 하는 삶의 경험들이 이루어진 장소를 포함한 환경 안에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와 간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관계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앞서 말했듯이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시간성, 사회성, 장소라는 세 가지 탐구 영역에 두고, 다면적으로 그 경험을 연구한다. 연구목표를 향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지식은 “구체적이고 관계적이며 내러티브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박향경 2012, 33).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이야기한 삶의 경험들을 이와 같은 탐구의 영역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 Clandinin & Connelly(2007)가 제

안한 내러티브 탐구의 진행 단계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 (1) 현장으로 들어가기

연구자는 다수 질적 연구의 경험으로 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한 목적적 유의 표집방법을 익숙하게 사용하여 왔다. 이 연구를 위해 자원봉사의 주요 영역인 사회복지, 공공 지원조직, 종교기관 등의 범위 내에서 연구참여자를 탐색, 사전 접촉한 후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조건은 봉사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여성 자원봉사자로서, 이야기 분석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봉사활동 참여 범위와 수준의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분산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 이후 몇 년간, 인간 대상 연구의 환경은 매우 험준했다고 할 수 있다. 질적 연구를 위해 현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특히 대면 인터뷰를 비접촉 방식의 면담으로 대체하는 데에 있어서 본 연구자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다. 새로운 감염증에 대한 전 사회적 방역지침 때문에 모든 비영리기관에서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외부 인력의 출입을 엄금하였기 때문이다. 2021년이 되면서 조금씩 완화지침이 시행되어 일부 서비스 제공에 자원봉사자들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 선정을 위한 표집방법을 시행함에 있어 현장에서의 직접 접촉보다 온라인을 통한 공개 모집과 게이트키퍼들을 이용한 소개로 연구참여자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은 현장과 연구참여자에 대한 밀접한 개입과 상호작용에 일정 정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러티브 연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현장성에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이와 같이 확보한 연구참여 지원자는 10명에 달했으며, 사전 면접(통

화 등)을 통해 봉사활동 기간이 지나치게 과거이거나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활동 내역을 갖는 경우, 연구참여 방식을 잘못 이해했거나 연구자와 면담 시간을 맞출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최종 6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봉사활동 내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는 비종파성 원칙 때문에 종교단체 봉사활동을 공인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요 비영리 영역뿐 아니라 특히 종교 분야에서 무보수 여성 봉사자들의 특별한 내러티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참여자의 이야기 분석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표-1> 연구참여자 명단

연구참여자	연령대	지역	봉사활동 내용	봉사활동 기간
1	40대	서울	동물 보호, 종교단체	15년
2	50대	서울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6년
3	60대	경기	병원 임상사목, 종교단체	12년
4	50대	경기	주민자치회, 독거노인 지원	4년
5	40대	충북	지역 이동 돌봄, 빈곤 주민 지원	10년
6	60대	충북	빈곤 주민 지원	3년

질적 연구의 과정은 특히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가 매우 중요하고 할 수 있다. Padgett(2001)에 따르면 질적 연구에서도 엄격성이 연구 결과와 결과에 대한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경우 내러티브의 타당성에 관한 엄격한 자세와 준비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Creswell(2010)의 타당성 확보 전략들을 활용하였다. 이를 테면, 경청과 개방적 자세를 통한 신뢰의 확보, 익명성에 대한 민감한 자세를 유지

하였고, 연구설명서를 활용하여 동의를 얻는 과정 모두 IRB<sup>2)</sup>의 제안대로 수행하였다.

## (2)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자료 수집은 심층면접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생애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어져 온 봉사활동 경험, 단체 참여 경험을 포함한 지역사회활동 등에 관한 포괄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험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질문에서 벗어난 이야기의 진행을 차단하거나 질문지의 범위에 국한된 내용으로 유도함으로써 자유로운 발화를 막지는 않았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표정, 동작, 어조 등 비언어적 표현 및 감정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면접의 진행에 반영하고 분석에 참고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 일정에 따라 IRB의 승인을 얻은 후 수 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결국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참여자들은 비접촉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다. 방역지침상 2인 모임은 가능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비접촉 방식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대면 면접을 함으로써 세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의 표정이나 제스처, 어조 등을 가능한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실시간 온라인 회의도구를 이용한 화상 통화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연구자와 비접촉 대면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면접은 1회당 2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전사 분량은 1회당 A4 30~50쪽에 이르렀다. 접촉 방식의 면접과 달리 컴퓨터 모니터를 통한

---

2) 서강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번호 SGUIRB-A-2101-02.

화상 통화는 연구자나 연구참여자 모두 익숙하지 않아 약간 부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은 기대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 (3)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

연구 자료로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은, 내러티브가 가진 생명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연구자의 이해와 경험으로 적절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연구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작업이다. 연구자는 발화된 내러티브가 연구참여자들의 생각과 경험이 담겨 있는 살아 있는 이야기임을 인지하고, 그 이야기에서 풍부한 의미와 맥락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전사한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고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목적과 관점이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들을 방해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연구 텍스트의 작성에 연구자의 관점이 지배력을 가지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봉사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공공 및 지역사회뿐 아니라 종교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하면서, 연구자의 기존 관심 영역이었던 사회복지 분야에서 예상할 수 있는 내러티브와는 사뭇 다른 의미들이 감지되었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분석과 의미 해석을 거친 재구성을 통해 본격적인 내러티브 분석과 연구 텍스트의 구성은 앞서 제시한 ‘풍경 도식’과 같은 텍스트의 변형을 통해 표출되었다.

## 4. 연구 결과

### 1) 기술: 여성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이야기

아래 이야기들은 연구참여자들이 들려준 자신의 삶과 봉사활동 경험을 재구성한 것인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봉사활동이 안착하는 과정을 보고 건축 현장에서 모티프를 얻어 묘사하고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경험한 봉사활동을 연구참여자별로 나열하는 대신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영역의 주제를 나누어 기술한다. 특히 과거와 현재의 삶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생활의 면모 등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연구참여자의 삶에 자원봉사활동이 들어오는 것에 꼭 선후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 (1) 과거에서 비롯된 현재의 삶 - 단단한 터 다지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40대, 50대, 60대의 중년 여성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성장과정을 소상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현재 또는 최근 까지 참여했던 봉사활동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먼 과거의 경험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들이 소환한 과거의 기억들은 현재 자신의 봉사활동과 유사한 내용을 보이는 활동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것을 현재 봉사활동의 원형(prototype)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였다.

원래 동물을 좋아했어요. 그전에는 개도 키우고...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로지만 토끼도 키우고 그랬어요.(연구참여자 1)

저희 집이 큰 집이에요. 큰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음식을 해도 제사 때 명절 때 음식을 해도 항상 본인 아버지 동생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눠주게끔 음식을 항상... 큰 집을 손이 크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늘 보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5)

예전에 엄마가 양로원 봉사를 다니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땐가 엄마가 같이 절에 다니시는 친구 분들하고 양로원 봉사를 다니셨어요. 그때는 봉사단체라는 개념보다 마음 맞는 친구 분들하고 직접 운전해서 개인후원금 내시면서 다니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님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호스피스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어요.(연구참여자 2)

그리고 전업주부가 아닌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예전부터 일상 중에 직장생활과 병행하거나 잠시 일정 기간의 공백이 생겼을 때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퇴직이나 이혼 등 생애 전환기를 계기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우도 있다. 다수의 경우 경력의 단절은 봉사활동 참여의 주요 계기가 되었다.

저는 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놀아주는 시간이 아이들하고 되게 적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여기에 수업에 참여해 가지고 같이 놀고 아이들 친구들도 데려와서 같이 수업 받고 놀고 이렇게 되는 거죠.(연구참여자 5)

직장생활을 거의 한 35년 정도 하다가 제가 2017년도에 명퇴를 하고 이제 마을 활동은 제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직장생활만 하다가 이제 버킷리스트에 봉사 좀 해 보자라는 게 있었어요.(연구참여자 4)

그러나 연구참여자 3과 6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단절적인 모습을

보였다. 연구참여자 3은 내성적인 성격과 응어리진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반동으로, 연구참여자 6은 오랜 기간 환자인 남편과 장애가 있는 아들 및 며느리와 함께 살아온 고달픈 일상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생활양식과 지식을 추구하는 일상을 향해 의지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전반기를 되돌이키며, 봉사활동을 포함한 현재의 일상과 연관 또는 단절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과거의 삶에 대한 기억을 현재의 봉사활동이나 생활력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인식은 분명해 보였다. 즉,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 흙바닥의 밀도를 높이는 과정, 과거의 삶은 터 다지기의 과정이었고, 거꾸로 말하면 현재 이들이 더 튼튼한 새집을 짓기 위해서 이들은 과거라는 터를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현재의 일상뿐 아니라 자신의 봉사활동과 관련시켜 불러온 과거의 기억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는 스스로 단단하게 터를 다지는 작업과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 (2) 봉사활동에 대한 이야기 - 일상의 리모델링

(아들은) 엄마가 하니까 그냥 묵인하는 정도지 그렇게 뭐 열렬하게 응원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연구참여자 3)

다 컸는데요. 애는 다 크고 그래서 특히 집에서 제 밥을 기다리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제가 그랬죠, 아들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니까 내가 너를 집에 앉아 갖고 식구들한테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서로가 피곤해지니까 이제 그냥 각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서로 만나면 반가운 사이가 되면 그게 가장 큰 거라고 얘기를 해요.(연구참여자 4)

내가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게까지 했어?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주변에 친구나 지인은 그냥 그 정도 반응...(연구참여자 1)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물어보자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내가 좋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는 태도를 나타냈다. 물론 자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연구참여자 1)와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연구참여자 2)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았다. 게다가 연구참여자들은 장기간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만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일상에 불만이나 더 큰 열망 같은 것을 언뜻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저도 남이 그럼 너 니 돈 쓰면서 하지 마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거든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내 맘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연구참여자 1)

신념이라고 하기는 거창하고요. 이 활동으로 장애인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변화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어서...(연구참여자 2)

제가 이렇게 가서 좀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이제 필요한 손길에다 이렇게 도움을 조금이나마 주고 그러니까 좀 보람이 있어요.(연구참여자 6)

그러나 봉사활동의 개인적 의미가 평범한 일상으로 그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연구참여자들은 봉사활동이 자신에게 가져온 변화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활로 모색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것은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그저 습관적으로, 변화 없는 일상의 경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달라진 건 사무실이 점점 창고가 돼가고 있죠. 봉사활동한 지가 조금 됐으니까 아파트에서도 아이들 이제 좀 작아진 옷들이나 신발들 이런 것들이 저희 집 문 앞에 박스째로 와 있어요.(연구참여자 5)

이제 반찬 같은 것도 해주려고 그러면 이제 그날이 이제 기다려지고 설레고 그래요.(연구참여자 6)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어떤 공식적인 활동들이 되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에 걸맞는 봉사 방역 봉사라든지 동네 다니면서 소독 이렇게 뿌려주거나 아니면 향균 필름 붙이거나 이런 등등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봉사활동이 있더라고요.(연구참여자 4)

또한 봉사활동의 경험을 새로운 지식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 6은 “이런 게 있는 걸 몰랐다”며 봉사활동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했고, 연구참여자 2는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을, 연구참여자 1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간과 깊이가 늘수록 현장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물론 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부작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연구참여자 5는 시간이 없어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개인적 부작용을 이야기했으며, 연구참여자 4는 “아무래도 사람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이게 때로는 갈등도 많다”고 조직적 부작용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조직의 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 많았다.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활동이 조직 단위로 수행되는 것을 뿌듯하

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캠담이 개개인으로 할 때보다 카라라는 인지도 있는 단체가 공무원이랑 상대를 해 주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게 먹힌다라는...(연구참여자 1)

위기 가구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가정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사회생활에 쓰기까지는 좀 시간도 걸리고 한부모 가정 등록하고 이러는 것도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때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 (우리 단체는) 그런 가정들한테 얼마 전에도 전기장판이랑 이불이랑 킷라면 등 이런 필요한 제품들, 겨울 신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갖다 드렸거든요. (연구참여자 5)

이와 같이 ‘내가 좋아서 한다’면서도 사회적 지평을 넓혀 가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자원봉사활동이 개인 일상의 작은 부분이나 통상적 생활의 면모에 불과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살아왔던 집터에 새로운 집을 짓고 있고, 봉사활동이라는 중요한 재료가 쓰이고 있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이 인생역전과 같은 일대의 사건이 아닌 이상, 이들의 집 짓기는 신축이라기보다는 리모델링에 가까울 것이다. 봉사활동을 통한 일상의 리모델링은 연구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사회환경에 ‘맞추어 주는’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조화되고 있다.

### (3) 여성으로서의 봉사활동 - 엄마 같은 인테리어

그렇다면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성인지는 어떠한가? 일상의 새로운 ‘집’을 구축하는 중년의 여성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의 봉사활동을 어떤 색채로 바라보고 있을까? 새집을 완성할 때 페인트와 벽지 등의 인

테리어 요소들은 구조물이라는 단단한 벽체와 거주자의 생활환경을 조화시키는 중범위적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본 연구자는 그중 성인지가 여성이 절대다수인 자원봉사자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개념이 될 것으로 보았다.

우선, 연구참여자들은 자원봉사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이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조직 구성원의 절대다수는 여성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봉사활동 현장에서 남성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남성 봉사자와 여성 봉사자의 역할 분담은 서로 일관성 있게 엮어져 인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전형적인 사회적 통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자가) 힘이 세니까 땅 파고 하는 것보다는 그럴 때 여자가 요리해 주고 일하는 봉사자들 간식 차리는 게 솔직히 효율성 측면에서 낫지 않나요.(연구참여자 1)

이렇게 무거운 거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옮긴다든지 이런 거는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 다 여성이 하기는 좀 벅차지 않을까 싶어요.(연구참여자 3)

청소도 하고 장애 가정에 가서 저기 하고 그러면 이제 여자 분들이 가서 헤드리는 게 편하니까, 남자 분들은 이렇게 무거운 거나 이렇게 조립하는 거 이런 식으로는 해줄 수는 있는데 이제 청소 같은 거는 남자들이 못하잖아요.(연구참여자 6)

봉사처에서 여성의 역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섬세한 면이 좀 더 있어 세밀한 부분을 간과하지 않는다고 할까요.(연구참여자 2)

이와 같이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전형적인 성 역할 구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성별의 차이를 완전히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성 역할의 구분을 선호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성 역할의 구분으로 더욱 효과적인 봉사활동의 결과를 얻었던 경험 때문이다. 특히 경제력의 필요나 기계 활용의 경험치는 고정된 사회적 성 역할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저희 봉사단체 카페는 그렇게 해서 여자 분들을 만난 거고, 남자 분들은 저희 고문 두 분하고 감사 한 분하고 이렇게 세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역할이 조금 금전이 나가는 경우, 이렇게 컵라면을 몇 박스씩 사야 된다, 음료수를 몇 박스씩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 그분들이 좀 후원을 해 주시죠.(연구참여자 5)

쓰레기 치우고 축사 다듬고 땅 고르게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삽 들고 하는 일이거나 축사 같은 것도 뭔가 공구 들고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런 것들은 물론 여자들이 한 명이 할 거 두 명이 해서 하면 하는데, 남자 분들이 확실히 힘도 있고 공구 같은 건 군대는 좀 더 많이 만져 보시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더 빨리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연구참여자 1)

한편, 여성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충은 성인지적 측면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자원봉사자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자원봉사 환경에서 아래와 같은 사례들은 사회적 이슈로 촉발될 소지가 다분하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저희가 갈비뼈가 부러진 아저씨네

집에 청소 봉사랑 반찬 지원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이 아저씨가 조금 음흉해요. 제가 못 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저희 회원들만 들어가고. 근데 저희 회원 엉덩이를 만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자꾸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능청스럽게 대처를 해 갖고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해 가지고, 아저씨 다음부터 또 이런 일 있으면 우리 안 들어와, 막 이제 이래 가면서 얘기 다루듯이 그렇게 해 갖고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풀고...(연구참여자 5)

캣맘이 여자라서 좀 더 솔직히 그런 시비랄까, 거의 90프로 이상이 남자 분이었던거ですよ. 여자 분도 있었는데 말 톤 자체가 달라요. 불편하니까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남자 분은 하지 마, 니네 땅이야, 다짜고짜 반말을 하거나 이런 거...(중략) 제 캣맘 친구는 남편 대동해서 할 때 시비 거는 빈도 수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대동하고 간대요. 밥을 주거나 조금 불편한 지역을 할 때 이랬는데, 조금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고...(연구참여자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자원봉사자의 성비는 왜 압도적으로 높을까? 먼저 연구참여자들 중 소수 의견을 들어 보면, ‘사회가 변화하면서 인식 변화와 더불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자원봉사를 한 것이 아닐까’(연구참여자 2), ‘집안에서 어쩔 수 없이 참아 내야 하는 혼란 속에서 참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배려도 같이 있는 것이다’(연구참여자 5), ‘여성들이 모임 기회가 많아서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연구참여자 4)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참여자도 공통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여성이 시간이 많다는 것’과 ‘모성(母性)’이었다. 여성이 시간이 많다는 이야기는 여성 취업률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납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분의 시간이 왜 다른 분야가 아닌 자원봉사로 모이는지 다른 설

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시간이 많다는 사실이 여성에게만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원봉사가 ‘모성의 발로’라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야말로 여성 자원봉사자 경험의 핵심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모성의 연장으로서 ‘집’이라는 세상을 구축하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은 마치 여성의 가장 차별적인 특성을 ‘엄마’라는 속성에 두는 것처럼 보인다. 여성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삶이라는 집을 리모델링하면서 새로 칠해 왔던 색은 바로 ‘모성의 색깔’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원봉사 현장에서 성 역할 분리가 무너지는 몇몇 경험들을 덧붙여 이야기해 주었고, 기성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측면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변화된 미래지향 성격에 대해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남자 분들도 여자랑 똑같이 다 해요. 무도 떨어 주고 배추전도 부쳐 주고 국도 뜨고 만들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떠나서 설거지부터 시작해 갖고 다 동등하게 나눠서 일을 합니다.(연구참여자 4)

주로 이제 남성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니까 저녁에 회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 꾸리아에 속해서 혼성 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연구참여자 3)

남성, 여성이 잘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성이 공감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성별에 따른 봉사활동이 따로 있지는 않겠지만 통상적인 경험으로 해당 봉사처에 맞는 사람은 있겠지요. 봉사자 자신도 사실 봉사를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자신이 그 곳에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2)

## 2) 분석: 여성 자원봉사자의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특히 종교 기반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들이 침묵하고 헌신하는 초탈성(超脫性)을 지닌 것에 비하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 가는 능동성과 긍정성을 많이 보인다는 차이점이 있다. 여기서는 포괄적인 사회복지 자원봉사자의 이미지와 중년의 여성 자원봉사자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그려냄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에 보다 풍부한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은유,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분절되지 않고 전달될 가능성을 높인다. 연구자는 헌신적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풍경도식을 찾았을 때 영화 속 집 요정(house-elf)의 헌신적 활동을 떠올렸다. J. K. 롤링 원작의 『해리 포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집 요정들은 상냥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종족이다. 마법사들은 집 요정의 봉사에 무감각해져 있고, 큰 저택에서 집 요정들은 저절로 생겨난다. 지능이나 마법에 출중한데도 돈보다 일을 좋아하고 대부분 보수 없이 마법사에게 복종한다. 인간과 혼혈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성별이 있는 존재로 추정할 수 있으나, 보통 성별을 알 수 없는 존재로 등장한다. 이와 같은 집 요정의 종족 특성이 기관의 요구에 따라 말없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와 비슷하다는 점은 주인공 해리 포터의 집 요정 도비(Dobby)의 대사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는 그들의 비밀을 지키고 침묵을 지킵니다. 우리는 그 집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절대 그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sup>3)</sup>

그러나 이 상징적 존재는 특별히 남성 또는 여성 자원봉사자에게만

3) Heyman(2002)의 영화 『해리 포터와 비밀의 방』.

결부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 자원봉사자들은 ‘시키는 일은 다 한다.’(연구참여자 1)는 언질대로 헌신적 자원봉사자의 속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자원봉사 현장에서 성별과 연령의 구분 없이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말하자면 연구참여자들이 구축한 모성의 헌신성은 도비의 헌신성과는 결이 다소 다른데, 이는 스스로의 봉사활동에 대한 의미 부여와 근간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자신의 주변, 또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해 반응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창의적 헌신성은 복종과는 전혀 다른 양태를 보인다. 이들이 꾸미는 ‘집’은 조건 없이 자리를 내주지만 주인 자리마저 내준 것은 아니며, 이들이 자신의 집에서 맞닥뜨린 이방인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종속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롭고 고유한 사회구조적 풍경을 찾아야만 했다. 붉은머리오목눈이(영어 Vinous-throated Parrotbill, 학명 *Sinosuthora webbiana*)는 참새와 닮은 작은 새로서, 흔히 ‘뱀새’라고 알려져 있다. ‘붉은머리오목눈이의 알 품기’를 풍경도식으로 떠올린 이유는, 빼꾸기의 탁란(托卵)을 받아 내는 것으로 동물 다큐멘터리에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덩치 큰 빼꾸기는 자기 스스로 둥지를 만들지 않고 작은 붉은머리오목눈이의 둥지에 알을 낳고 가 버린다. 붉은머리오목눈이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알과 빼꾸기의 알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품어 부화시킨다. 빼꾸기는 붉은머리오목눈이의 모성을 번식에 이용하는 것이다.<sup>4)</sup>

여성 자원봉사자들은 본능처럼 주어진 자신의 모성을 사회에 내놓

4) 붉은머리오목눈이의 작은 알들에 빼꾸기의 큰 알이 섞여 있는 둥지나, 붉은머리오목눈이 어미가 자신보다 덩치가 더 큰 새끼 빼꾸기를 양육하는 사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는다. 서투르면 서투른 대로, 가족을 돌본 경험이 있다면 더욱 능숙하게 돌봄 능력을 발휘한다. 모성이 결핍된 사회의 다른 구성원을 특별한 계산 없이도 품고 싶어 하고, 품을 줄 알며, 실제로 자신의 품을 아끼지 않고 내어 준다.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일보다 남을 돌보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일들은, 붉은머리오목눈이가 자신의 알을 밀어내고 성장하는 빼꾸기 새끼를 정성스레 돌보는 모습과 유사하다.

붉은머리오목눈이인 여성 자원봉사자가 빼꾸기의 알이 섞여 있을지도 모를 자신의 둥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화시키는 것은, 자신의 생활환경이 평탄하고 풍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확장하고 주변 사회와 조화로움에서 만족감을 찾아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불리와 불편을 감수하게 만들고 편견을 흡수함으로써, 성 차별적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탄력성을 갖추도록 만들었다. 장기 자원봉사자인 이들은 그렇게 더 오래, 더 강하게 활동함으로써 종속적 자세에서 탈피하고 자신의 환경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 5.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한 일례를 통해 자원봉사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 및 자원봉사활동 정체 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연구참여자들의 모성 의식은 성인지 관점의

적용을 통한 성 주류화 과정의 기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열린 결말을 향해 진행하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성인지적으로 차별적 특성을 찾아내려는 과정에서 도출된 모성의 개념은 우리나라의 중년 자원봉사자들의 현실과 특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비슷한 상황에서 남성 또는 연령대가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봉사활동에 대해 모성 의식을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결과는 정책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더 치열한 생각과 기획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자원봉사 정책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획되는 소모적 프로그램이어서는 안 되며,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문제는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성향이 크고, 이에 따라 정책 개발 및 실행 관계자들에게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은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함의는 당사자 이야기를 근거로 삼는 연구활동 자체의 함의로 확장될 수 있으며, 충분히 담론적인 형태로 기술될 수 있다.

먼저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상 중에서도 성인지 이슈는 항상 파격적이고 공격적으로 다루어져 온 주제이다. 이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의 영역에서 자원봉사 영역이 비켜 갈 수는 없을 것이며, 자원봉사의 가치가 선불리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고와 대응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자원봉사자 당사자의 목소리에 대한 경청의 과정과 내용을 반영할 수 있어야 정책 설계에서 합리적 방식과 근거에 의한 성인지적 관점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사자 이야기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자원봉사의 성 주류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자원봉사 정책가와 관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효용성을 가진다. 특히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세밀한

사회현상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 맥락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일은, 기존의 정책에 대한 합목적적, 종속적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실제 여성 자원봉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대변함으로써 유연한 학술적 결과를 산출하는 데 기여한다. 여기서 종속적이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의 중심과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자원봉사 정책에 자원봉사자가 끼워 맞추어지는 역전 현상을 의미하며, 이를 바로잡는 일은 학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상당히 비판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수준의 논의를 몇 가지 구체적인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수립이 점점 촘촘해지는 제도적 환경에서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사회서비스의 주요 영역 일선 현장에 무작위로 투입되고 소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론에서는 2012년 대선 이후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 전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복지 사각지대에 관한 이슈가 반복되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복지의식의 변화에 따라 자원봉사 참여 수준도 달라진다(김옥진 2017). 이때 상당수의 자원봉사자들이 간헐적 활동주기와 새로운 자원봉사처로 이동함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직무교육은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자료의 구성과 교육자의 교육역량은 전혀 성인 지적 관점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여성’ 자원봉사자에 대한 젠더화된 담론은 구시대적 전형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원봉사 관리자 또는 교육자의 잘못이라기보다 성인지적 자원봉사 교육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의 젠더화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과정 각 단계에서 생산된 자료와 연구결과들이 자원봉사 교육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리더십을 위한 훈련에서 개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전형적 성 역할 태도가 일상과 생애 단계를 통해 고착된다는 사실과 후술할 경력단절

에서 시작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행태를 고려하였을 때, 자원봉사자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자료는 개인적으로는 ‘자기계발로서의 자원봉사’ 측면에서 사회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과 동시에, 젠더화된 자원봉사의 현장에서 자발적이고 시민적인 변화의 시도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여성 자원봉사자의 간헐적 활동주기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관계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의 경력 단절이 자원봉사 참여의 주요 계기가 된다는 사실에서, 봉사활동의 의미가 어떤 자원봉사자에게는 단순히 일상의 소소한 선택적 방문지가 아니라 생애과정에서 중요한 한 단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즉 봉사활동의 경험이 경력 단계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 참여의 사회적 의미를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고용안정센터나 자원봉사센터 등의 기능적 조직뿐 아니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울시 50플러스와 같은 생애주기형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할 방안이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가 다양한 소득형 및 시민참여형 생애활동의 스펙트럼에서 경력의 연장선으로 더욱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이 인식되어야 한다. “공·사 구분의 경계를 허물고 재구성하는 주체”(이선미 2011, 64)로서 여성 자원봉사자에 대한 재발견이나,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자원봉사 참여와 대체(trade-off) 관계에 있다는 통찰이 선행연구(이정기 2018)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주장의 지지 근거로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 관계를 유연하게 연결할 수 있어야만 소소한 보조적 활동에 머무는 ‘무료 노력봉사자’로서의 여성 자원봉사자 위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산적 노동을 넘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까지 사회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는 이승윤, 백승호(2021)의 참여소득 관련 연구는 반대 방향에서 수렴하는 양상을 보

여준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국가 축소 국면 또는 경제 위기의 부수적 해법으로 각국의 정부가 선택한 자원봉사 전략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과정을 인지하고, 이것이 자원봉사자의 생애적 측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탐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한 자원봉사 정책 및 구조 분석은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개선을 위해서도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본고 첫 문단에서 언급한 ‘여성 노동의 자원봉사화’에 대한 실증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성인지적 관점이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분명하나, 자원봉사의 발전과 질적 향상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성인지 관점으로 인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의 다양한 수준에 대한 관찰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풍부한 정책 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성인지적 관점의 속성은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성인지에 대한 이론적 변화와 실천적 현상이 결합되는 지점에서 개념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의 발전에 대한 지향 없이 성 대결적 판도를 촉진하는 일에 오용이 되는 일 따위이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 영역에서 시민정체성(citizenship)의 재발견이 필수적이며, 성인지적 관점과 시민정체성의 개념적 조화가 자원봉사 영역의 성 주류화 담론 형성에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28일 접수, 5월 8일 심사완료, 5월 23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곽미정. 2014.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동기가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보』. 28(3). 85-107.
- 곽미정·김영미. 2015. “여성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유형 비교연구 - 심리적 안녕감과 여가만족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28(1). 125-150.
- 공미혜·류순덕. 2004. “전화상담 여성자원봉사자의 여성주의 정체성이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5(1). 43-59.
- 구혜영·김일동. 2012. “개인·업무·조직요인이 여성노인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비영리연구』. 11(1). 89-122.
- 김금순·홍경선. 2019. “중년기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0(2). 987-1002.
- 김성경. 1999. “여성자원봉사자의 활동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 9-30.
- 김옥진. 2017. “복지의식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에 관한 종단연구.” 『사회 복지정책』. 44(4). 5-34.
- 김혜정. 2018. “젠더 거버넌스 관점에 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여성학연구』. 28(1). 215-249.
- 박향경. 2012. “정신장애인의 어머니가 경험한 가족생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서병숙·김혜경. 2000.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39-152.
- 원병오·김화정. 2012. 『한반도의 조류』. 서울: 아카데미서적.
- 이선미. 2011. “여성 자원봉사 리더의 돌봄 경험 연구: 활동 동기를 중심으로”

- 로.” 『한국여성학』, 27(3). 39-70.
- 이승윤·백승호. 2021. “생태적 전환을 위한 ‘참여소득’의 가능성: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서비스, 일자리보장제와의 비교.” 『시민과 세계』, 39. 129-168.
- 이정기. 2018. “자원봉사 참여에 의한 종교계 사회복지기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 『한국비영리연구』, 17(2). 65-84.
- 이정기. 2019. “자원봉사 담론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시론.” 『한국비영리연구』, 18(2). 67-83.
- 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 고양: 대영문화사.
- 장성자. 1994. “선거운동 여성자원봉사자의 참여 의의 및 역할.” 『여성연구』, 45. 5-25.
- 조선주. 2011.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 추정.” 『노동정책연구』, 11(3). 81-107.
- 주성수. 2004. 『정부의 자원봉사 정책과 여성 자원봉사 발전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최희경·김승희. 2012. “중년 기혼여성의 자원봉사활동과 가족 내 역할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3). 269-295.
- 홍선희. 2015. “중년여성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비판사회정책』, 49. 474-519.
- 홍현미라·권지성·장혜경·이민영·우아영. 2008. 『사회복지 질적 연구 방법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소경희·강현석·조덕주·박민정 역. 2007. 『내러티브 탐구 -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Creswell, J. W. 조홍식 · 정선옥 · 김진숙 · 권진숙 역. 2010.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2판)』. 서울: 학지사.
- Heyman, D. (Producer), Columbus, C. (Director). 2002. *Harry Potter and the chamber of secrets* [Motion picture]. Burbank, CA: Warner Bros., Borehamwood, Hertfordshire(UK): Heyday Films, & Beverly Hills, CA: 1492 Pictures.
- Padgett, D. K. 유태균 역.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나눔.
- Park, S. S. 1996. *The Gendered Nature of Volunteer Work*. University of Alberta.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 Stride, A., Fitzgerald, H., Rankin-Wright, A. & Barnes, L. 2019. The En/gendering of volunteering: “I’ve pretty much always noticed that the tail runner is always female”, *Sport Management Review*, <https://doi.org/10.1016/j.smr.2019.05.006>.
- Waters, D. & Bortree, D. 2012. “Improving volunteer retention efforts in public library systems: How communication and inclusion impact female and male volunteers differently.”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17(2). 92-107.

A Narrative Study on Female Volunteers'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ies

*Lee Jeonggi\**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life experiences of female volunteers from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volunteer work through their narratives. The personal history and volunteer experience of female volunteers participating in various fields are described according to Clandinin and Connelly's narrative research method. Each participant's story is analyzed in three parts: (1) life history including living environment, (2)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volunteer work, and (3) gender perspective discourse on volunteer work, and a landscape schematic is derived.

As a result of the study, (1) "Rolling the Ground for a House" for past and present lives, (2) "Remodeling of Daily Life" for volunteer stories, and (3) "Building a Mother-like House" for volunteer work as a woman were described as motifs at the construction site. Finally, the landscape schematic described a protective attitude toward others and

---

\* Lecturer, Media Social Welfare Major, S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 Seoul.

the world by comparing it to “the incubation of Vinous-throated Parrotbill.”

As such, middle-aged women in their 40s to 60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have typical stereotypes in terms of gender perspective. Through volunteer work based on the expansion of motherhood, they contact the world and expand their horizons. This is a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recent gender mainstreaming, and is to request a comparative study on the gender perspective of female volunteers under 30s.

**key words:** Female Volunteer, Volunteering, Gender  
Sensitivity, Narrative Study, Sex Role Stereotype